

상실과 트라우마: <그을린 사랑>의 혼습*

이 일 수** · 김 태 형***
(군산대학교)

Lee, Ilsoo & Kim, Taehyung. "Loss and Trauma: Working Through the Wound in *Incendie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9.4 (2023): 147-162. The study analyzes a personal history of violence and loss in *Incendies*, focusing on trauma. The film portrays Jeanne and Simon's journey to trace the past of their mother Nawal, which oscillated between Christianity and Islam, student and terrorist, mother and prisoner.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the narrative of the film based on the myth of Oedipus, where the mechanism of trauma is related to loss and separation. The history of the Marwan family, which borrows the structure of the aforementioned Greek tragedy but applies a twist at the climax, depicts the mourning and melancholy of loss and suggests the attributes of trauma. In addition, Nawal's narrative, which recounts the memories and emotions of wounds, suggests working through such wounds and facing the loss following trauma. (Kuns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Incendies*, trauma, mourning, melancholy, working through

I. 트라우마, 그 기억의 서사

“화염”(incendies)은 영화 <그을린 사랑>(Incendies)(2010)의 주인공 나왈 마르완(Nawal Marwan)이 경험한 상실과 그 흔적을 상징한다. 나왈은 레바논 (Lebanon)으로 추정되는 국가의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다. 그녀는 기독교도와

* 본고의 초고 일부는 대한영어영문학회 2022 가을 학술대회(2022.11.5.)에서 발표되었음

** 제1저자

*** 교신저자

갈등을 빚는 무슬림의 아이를 낳고, 테러리스트가 되어 기독교 시민군 지도자를 암살한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기술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그의 아이들을 낳은 나왈은 출소한 뒤 캐나다로 이주한다. 18년 후 어떤 남성의 정체를 확인한 그녀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한다. 영화는 존재 여부를 몰랐던 아버지와 형을 찾아 편지를 전하라는 나왈의 유언을 수행하는 쌍둥이 잔느(Jeanne)와 시몽(Simon)의 여정을 그린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어머니가 겪은 폭력과 상실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순환을 멈추는 임무를 맡는다. 여정의 끝, 남매는 니하드 하르마니(Nihad Harmanni)란 이름으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남성을 찾아가 편지 2통을 전달한다. 니하드는 “72번 죄수”와 “어머니”가 1통 씩 쓴 편지를 확인한 후, 나왈의 묘를 방문한다.

레바논과 주변 중동 국가의 역사가 영화와 원작인 와즈디 무아와드(Wajdi Mouawad)의 동명 연극에 반영되어 서사의 외피를 완성한다. 나왈의 삶과 레바논 정치사를 연결하고, 이민자 출신인 무아와드와 나왈의 실제 모델인 소하 베차라(Souha Bechara)의 경험담을 병치시킨 분석(임재일 2019)이 가능한 이유다. 여성 서사로서 나왈의 여정은 남성의 법과 질서에 균열을 내는 역할(김숙현 2014; 이명호 2015)도 한다. 어머니와 아이, 그리고 아버지로 회귀하는 마르완 가족의 역사는 오이디푸스(Oedipus) 신화와 정신분석의 오이디푸스 구조를 차용하고(안영순 2016), 나왈은 그 안에서 이오카스테(Jocasta)와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구하는 여성으로 평가받는다(이명호 2015).

현실적, 신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 가능한 <그을린 사랑>은 진실을 알고, 그 깨달음이 가져온 결과를 마주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본 연구는 신화적 화법과 이와 관련한 정신분석 이론을 기초로 삼지만, 오이디푸스 구조보다 마르완 가족이 사건을 겪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트라우마의 본질을 체현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즉 주인공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중에 드러나는 트라우마의 속성과 그 체계를 중심으로 <그을린 사랑>을 분석한다.

나왈과 니하드는 사건 당사자로서 트라우마를 구현하고, 잔느와 시몽은 트라우마 극복 과정을 체현한다. 나왈은 말이 아닌 대필한 글을 통해 고통을 되짚는다. 남매는 엄마의 흔적을 추적하고,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를 니하드에게 넘기면서 과거의 상처를 바라볼 계기를 마련한다. 니하드는 운명 공

동체인 남매가 전한 편지를 읽으며 진실을 접한다. 그는 나왈의 묘소 앞에 서서 그녀의 비석, 그 비석에 새겨진 글을 읽음으로써 어머니를,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다.

마르완 가족은 가족, 국가, 종교와 연관된 이별, 배신, 폭력, 죽음이 가져온 상실을 애도하기 위해 그들 앞에 놓인 트라우마를 바라보아야만 한다. 잔느와 시몽은 나왈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형제와 아버지를 만난다. 오이디푸스 신화의 구조를 빌리지만 다른 결말을 제시하는 영화의 서사는 과거의 상실을 경험하고, 기억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여정을 그린다. 이는 상실과 관련된 애도와 멜랑콜리, 그리고 상실이 남긴 트라우마와 관련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등장인물 각각의 트라우마를 분류해 그들이 겪는 상실의 의미를 현실적, 상징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극적 서사가 형성하는 오이디푸스 구조는 어머니와 아이의 이별, 아이가 신으로 대변되는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형성한다. 어머니는 종교, 정치적 상상으로 위장한 아버지가 형성한 증오의 끈을 끊고, 그 폭력성을 현실에 구현한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 안음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아이의 상실을 애도한다.

II. 나왈의 과거: 트라우마의 근원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멜랑콜리에 대해 쓴 논문, “슬픔과 우울증”(1917)(이하 “애도”와 “멜랑콜리”로 번역)에서 상처, 무시, 실망을 포함하는 멜랑콜리의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상실한 대상에 대한 애도의 개념을 확대한다. 즉 죽음이나 이별에 제한되지 않는, 대상과 분리되는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고, 이들이 클라인(Melanie Klein)이 주목한 나쁜 대상 경험으로 남는다. 프로이트는 나쁜 대상 경험을 극복하는 차이에 따라 정상적 애도, 병리적 애도, 멜랑콜리로 구분한다(243-52). 나쁜 대상 경험, 대표적으로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고착되기도 한다. 솔라스(Franklin Sollars)는 나쁜 대상 경험을 애도해야 나쁜 대상을 참을 수 있다고 한다(209). 나쁜 대상 경험의 이미지와 기억은 사라지지 않기에 우리의 애도는 고통에 대한 정동을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인지가 마비되고, 주의와 판단이 흔들리게 마련인데, 애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상실과 관련된 자아 개념을 재평가 할 수밖에 없다(Caplan 415). 결과적으로 트라우마와 관련한 애도는 고통의 개인사를 다시 경험하고, 다시 쓰는 과정이다.

나왈의 남자 형제들은 나왈을 사랑한 무슬림 와합(Wahab)을 처단하고, 임신한 나왈과 그녀의 아기를 명예 살인하려 한다. 나왈의 할머니는 갓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고, 나왈을 삼촌 집에 피신시킨다. 나왈은 살리기 위해 떠나보내는 자식에게 “언젠가 널 찾을게. 약속할게, 아가야”라고 다짐하고, 이후 아들을 찾기 위한 나왈의 여정이 시작된다. 나왈의 첫 트라우마는 형제들의 연인 살해, 그리고 아들과의 이별에 대한 기억이다. 계율을 앞세운 신의 이름을 빌린 남성들은 상상적 아버지(Lacan 211-13)로서 나왈을 억압하고, 니하드의 아버지로 기능하려 한다. 나왈과 니하드는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신념의 만족을 위해 행하는 폭력과 복수의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사라진 아들을 찾으러 무슬림 지역 데레사(Deressa)로 향하던 나왈은 버스에 탄 무슬림 승객들이 기독교 민병대에게 학살당하는 현장을 목격한다. 자신이 구하려던 여자 아이가 잔혹하게 살해되자, 그녀는 무슬림 민병대에 가입해 테러리스트가 된다. 나왈의 두 번째 트라우마는 아들의 실종,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이다. 사실 기독교 민병대의 민간인 학살은 나왈의 아들이 거주하던 민간인 마을을 습격한 무슬림 민병대의 행위와 다른 점이 없다.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던 아이가 죽는 장면을 목도한 나왈이 신과 남성이 가져온 폭력과 그 트라우마에 반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기독교신이 아이를 앗아가는 현장에서 대경실색한다. 버스를 휩쓴 화염은 나왈이 가지는 충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이후 그녀는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삶을 산다.

나왈은 기독교 민병대장 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로 위장 취업한다. 깨우쳐서 세상을 알라는 할머니의 뜻을 따라 다레쉬(Daresh)대학 프랑스학과에 진학했던 나왈은 폭력을 위해 지식을 활용한다. 그녀는 살인의 대가로 크파르 리얏(Kfar Ryat)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고, 고문에 굴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버텨 “노래하는 여인”(La femme qui chante)이란 별명을 얻는다. 고문 기술자 아부 타렉(Abou Tareq)은 이런 나왈을 강간한 후 노래를 계속 부를 수 있나

며 비아냥거린다. 나왈의 세 번째 트라우마는 자신이 속했던 교파 지도자 살해와 그 대가로 치른 15년의 수감 및 성폭행의 기억이다. 나왈은 종교의 광기에 몰든 가부장제의 폭력에 로고스(logos)의 힘으로 저항하라는 할머니의 바람을 끝까지 받들지 못한다. 그녀는 또 다른 여자 아이의 아버지를 제거함으로써 신과 남성이 형성한 폭력의 고리를 이어간다. 이슬람교 민병대장 샴세딘(Chamseddine)과 기독교 민병대장은 상징적 아버지 신의 이름을 빌려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 종교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나왈은 그 상상의 아버지들이 이끄는 집단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여성이다. 그녀가 종교 집단들이 행하는 폭력의 가운데에 서서 목표물이 되는 이유다.

아부 타렉의 아이를 임신한 나왈은 감방에서 중절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녀가 낳은 아이들은 수용소 관습대로 처리되지 않고 생존한다. “노래하는 여인”의 아이를 죽게 놔둘 수 없다는 간호사의 의지 때문에, 나왈은 출소 후 자식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 샴세딘은 캐나다에 집과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과 함께 가라고 한다. 나왈은 자신에게 그런 요구를 하냐고 반문하지만, 이민을 결심한다. 어머니와 불편한 관계를 인정한 시몽의 고백에서 짐작할 수 있듯 새로운 삶이 나왈에게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지는 않은 듯하다. 나왈의 네 번째 트라우마는 출생부터 반기지 못한 쌍둥이의 존재다. 잔느와 시몽은 아부 타렉이 저지른 폭력의 잔해이자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왈의 현재를 상징한다. 이슬람 민병대 가입 의도를 의심받던 나왈은 반대파 수장을 제거하고 처벌을 받아야 일원으로 인정받는다. 잔느와 시몽은 나왈에게 상처를 준 신과 남성의 폭력을 연상시키고, 그녀가 과거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나왈은 잔느와 함께 방문한 수영장에서 발뒤꿈치에 3개의 점을 새긴 남성을 발견한다. 그 남성이 아부 타렉임을 확인한 나왈은 뉘튼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고, 입원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다. 시몽이 담당 의사에게 어머니가 평소 보인 착란 증세를 얘기하는 장면에서 짐작건대 나왈은 이민 이후에도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영장 사건은 이전의 트라우마를 한꺼번에 가져왔을 것이고, 나왈은 자식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난다. 나왈의 마지막 트라우마는 마침내 찾은 아들이 가져온 진실과 관계있다. 아부 타렉이 아들 니하드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왈은 할 말을 잃는다. 그녀가 알게 된 진실은 그녀 뿐 아니

라 아이들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비밀을 간직한 채 세상을 뜰 수 있었지만, 나왈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말하고, 바라보는 길을 택한다. 진실이 그녀에게 다가오고,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 나왈은 이 트라우마를 헤쳐 가려 한다. 그 와중에 자식들 역시 어머니의 상처를 알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녀는 다시 노래하는 여인이 되기로 하고, 자식들도 노래하는 여인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

나왈은 첫 아이와 이별한 트라우마를 새로운 대상을 찾음으로써 극복해야 하지만, 애정을 투여할 아이들은 다른 트라우마를 가져온 사건의 결과물이다. 그리움의 대상, 애도의 대상인 큰 아들이 트라우마의 순환을 가져온 점은 아이러니다. 프로이트는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리고, 반복해서 끄집어내어, 고통의 기억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을 혼습(working-through)으로 정의한다(2004, 103-20). 나왈은 쌍둥이를 보며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고착을 극복하는 혼습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고통의 기억이 가져온 충격을 극복했는지, 극복의 과정이 어떠한지는 그녀가 남긴 편지에서 짐작할 수 있다.

니하드와의 재회 후 충격을 받은 나왈은 과거로 가는 길을 말로 직접 전하지 않고 직장 상사이자 공증인인 장(Jean)이 대필한 글로 알린다. 그녀는 자신이 수행하던 니하드 찾기를 잔느와 시몽에게 넘긴다. 그리고 그 임무가 완료될 때까지 자신을 “관에 넣지 말고, 나체로, 기도문 없이 묻고,” “세상을 등질 수 있도록 시신을 얹어놔 달라”고 요구한다. “비석을 놓지 말고 이름도 새기지 말라”는 근거로 “약속을 어긴 자는 비문이 필요 없다”는 이유를 든다. 수의, 관, 비석, 비문을 갖추지 말라는 나왈의 요구는 장례와 관련된 절차를 부정하고, 장례 이후 남겨질 묘소와 관련된 관행 역시 거부한다. 즉 자신에 대한 애도를 지연한다.

시몽은 어머니의 비정상적 정신 상태를 근거로 유언과 상관없이 장례를 치르려 한다. 그러나 죽은 이의 유언을 신성시하는 장은 시몽의 요청을 거부하고, 잔느 역시 아버지와 형에게 편지를 전하라는 어머니의 유지(遺旨)를 받아들인다. 나왈이 “그들에게 편지가 모두 전달되면 너희에게도 편지를 줄게. 침묵이 깨지고 약속이 지켜지면 비석을 세우고 내 이름을 새겨도 된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위한 애도가 가족들을 찾아 편지를 전달하면 수행될 수 있기에 쌍둥이는 존재를 몰랐던 가족을 찾는 임무, 나왈이 바라던 아이 찾기를 수행하겠

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머니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자신들의 상실을 마주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한다.

Ⅲ. 잔느와 시몽의 현재: 트라우마의 회귀

잔느와 시몽은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잔느와 달리 시몽은 나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고, 생전 나왈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도 않았다. 자식이어도 나왈이 성폭행의 결과물인 남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수 있다. 남성의 폭력은 나왈이 사랑하는 남성들과 이별하게 만들고, 때어내고 싶은 상처를 안고 가게 한다. 어쨌든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은 쌍둥이의 첫 번째 트라우마와 관련된 기억이고, 존재를 모르는 아버지를 제외하면 잔느와 시몽이 처음 겪는 가족의 상실이다.

나왈은 애도의 절차를 밟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존재를 몰랐던 아버지와 형제를 언급함으로써 쌍둥이가 갈등하게 한다. 추리극의 주인공 마냥 생사를 모르는 가족의 흔적을 되짚는 쌍둥이의 여정은 나왈의 트라우마를 전해 받는 과정이다. 나왈의 유연장은 새로운 가족을 등장시키고, 아이들이 어머니를 심리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하게 만든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유연장은 아이들이 어머니에 투여하던 리비도를 생존 여부를 모르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에게 옮겨, 즉 “대상의 상실을 극복”(프로이트 2006, 261)하는 애도를 시작하게 한다. 가족을 찾으면 남은 유연 내용을 공개하고 장례를 지내고 묘비를 세움으로써 애도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 애도의 절차를 밟는 듯 했던 유연의 실행은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자식들에게 전한다.

어머니를 애도를 하는 중 아이들에게 전이되는 트라우마는 두 가지 양상으로 구현된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강간한 아부 타렉임을 알게 된다. 잔느는 나왈이 아부 타렉에게 강간당해 아이를 낳은 사실만을 확인한 채 시몽을 어머니의 나라로 부른다. 시몽은 잔느를 캐나다로 데려오려 하지만, 나왈의 유연을 집행하려는 장의 반대에 부딪힌다. 잔느와 시몽의 출산을 도왔던 간호사는 제회한 남매를 샤프완과 자난(Sarwan and Janaan)이라고 부른다. 태어나

자마자 강에 버려질 뻔한 아이들은 현재와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생존한 사실을 알게 되고, 산파에 의해 고아원에 맡겨져 니하드 드 메(Nihad de Mai)로 불린 형제와 운명을 공유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남매는 진실을 마주한 충격과 트라우마를 나눌 짝이 있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태아 자세로 수영장에 뛰어들어 설새 없이 수영을 하고, 서로를 껴안는다. 트라우마를 경감하는 일종의 인지 행동요법(cognitive behavior therapy)(Wald et al. 203-4)인 셈이다.

남매는 형제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또 다른 진실을 접한다. 시몽은 노래하는 여인의 아들이 니하드를 찾는다는 소문을 퍼뜨려 삼세딘을 만난다. 감옥에서 나왈이 그러했듯 시몽은 눈을 가린 채 은밀한 장소로 안내된다(그림1, 2). 자신 앞에 놓인 고난을 감지하지 못한 나왈처럼, 신화의 오이디푸스처럼, 시몽은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삼세딘은 시몽이 니하드의 동생임을 전해 든곤 주위를 물리치고 눈가리개를 풀어준다. 시몽이 알게 되는 진실은 잔느와 함께 마주한 진실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충격을 가져온다. 삼세딘과의 만남 후 시몽은 잔느에게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을 한다. 잔느가 전공한 수학, 아니 일반적 논리에 어긋나는 질문이지만, 잔느는 질문 너머의 진실을 깨닫고 오열한다. 아이들이 마주하는 두 트라우마는 하나의 사건에서 연유했기에 시몽의 수수께끼는 나왈의 논리를 가진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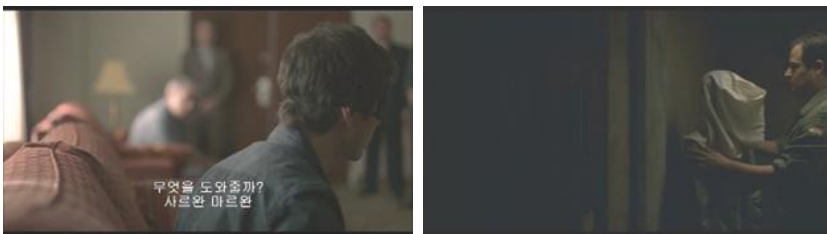


그림1. 성폭력의 결과를 알기 전 눈가리개를 한 시몽 그림2. 성폭력을 당하기 전 눈가리개를 한 나왈

어머니와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 어머니처럼 고난을 겪지 않은 잔느와 시몽이지만, 그들이 추적하는 나왈의 과거는 그녀의 트라우마를 전이시킨다. 영화는 전이의 과정을 시청각적으로 구현한다. 나왈의 과거를 추적하는 잔느의 여정은 나

하드를 찾는 나왈의 여정과 중첩된다. 다레쉬 대학으로 가기 위해 할머니 집을 떠나는 나왈과 나왈의 흔적을 찾느라 다레쉬 시내를 걷는 잔느는 똑같이 오른쪽 어깨에 가방끈을 둘러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나왈이 니하드를 찾아 데레사로 가는 길과 잔느가 데레사로 가는 길은 공히 3인칭 시점으로 버스를 내려다보는 카메라에 포착된다(그림3, 4). 잔느가 남부 지역의 폐허를 둘러 볼 때 삽입되는 음악은 고아원에서 잡혀 온 5살 니하드가 소년병이 되기 위해 머리를 깎이는 장면의 배경 노래인 라디오헤드(Radiohead)의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You and Whose Army?)다. 눈가리개를 한 시몽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샤르완 마르완?”이라 묻는 삼세딘의 목소리가 삽입된 현재 장면(그림1)은 “네 아이들이 곧 우리 아이들”이라며 출소한 나왈에게 도움을 주려는 삼세딘의 목소리만 들리는 과거 장면을 연상시킨다. 남매가 어머니와 형제의 과거, 그들의 트라우마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설정이다.



그림3. 나왈이 데레사로 가는 길



그림4. 잔느가 데레사로 가는 길

진실을 알게 된 잔느와 시몽은 어머니의 양수에 있는 태아처럼, 출산 후 강물에 던져진 아기처럼, 수영장에 뛰어들다. 수영장은 나왈이 니하드이자 아부 타렉인 인물의 정체를 알아차린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물은 극복을 위해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트라우마의 근원이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분리된 시간과 플롯은 장면, 구도, 상황의 유사성을 매개로 연결되며, 이는 진실이 밝혀지고, 가족의 트라우마가 전이되는 과정이다.

과거의 역사와 상처를 추적하고, 알고, 안으려는 의지를 확인한 남매는 나왈이 “쌍둥이에게 쓴 편지”(Lettre aux jumeaux)라는 제목을 붙인 마지막 편지를 개

봉한다. “침묵이 깨지고 약속이 지켜지면 비석을 세우고 내 이름을 햇빛 아래 새겨도 된다”는 편지의 서두는 애도를 위한 임무의 본질을 제시한다. 위로 받아야 할 나왈은 뒤에 남겨진 아이들을 위로한다, 아니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안식을 준다. 나왈에 따르면 이야기의 시작은 쌍둥이의 탄생을 기준으로 삼으면 “공포”일 수 있고, 쌍둥이의 아버지가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위대한 사랑”일 수 있다. 그런데 나왈은 이야기의 시작을 약속, “분노의 흐름을 끊어내는 약속”으로 설정한다. 나왈은 아이들이 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하고,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전해 받고, 어머니의 진실을 알아내길 바란다. 스스로 과거의 불길에 그슬린 흔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나왈의 의지는 아이들에 의해 실현된다. 이름, 옷, 애도의 말을 거부했던 여인은 자신의 삶을 적신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이를 끊어낸 후에, 애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니 노래한다.

나왈은 편지를 씌으로써, 말하지는 못했지만 침묵하지는 않음으로써, 아이들을 달래고 자신을 위로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장가를 부르며 위로해 줄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나왈의 유언은 낳은 자식 중 어느 누구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어머니의 탄식이기도 하다. 노래 부르는 여인은 떠나간 아이를 그리며 웅얼거렸을 수 있다. 마지막 사랑의 고백을 읽고 흐느끼는 잔느와 울음을 참는 시몽은 망자를 보내고, 트라우마의 기억을 간직하는, 남겨진 이들의 정동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IV. 니하드의 시간: 트라우마의 순환

니하드는 유복자로 태어나 고아원에 맡겨진다. 증조할머니는 불에 달군 바늘로 갓 태어난 그의 발뒤꿈치를 찔러 문신을 새긴다. 후에 나왈이 자식을 알아 볼 수 있게 하려는 표식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 헤어지는 아이가 가질 첫 트라우마의 상징이다. 니하드는 생물학적 부모와 이별하고, 상상적 아버지인 종교 지도자를 받들게 강요당한다. 민병대 저격수가 된 소년 니하드는 어머니를 잃은 후 리비도를 옮길 대상을 찾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죽이기만 한다. 삼세단의 회상 속 니하드는 어머니를 찾고 싶어 순교자가 되려 한다. 애도의 측면에서 니하

드의 행동을 분석하면, 엄마가 어디서든 자기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죽으려는 니하드는 생이별의 트라우마, 그리고 어머니 상실에 가져온 멜랑콜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임진수에 따르면 애도는 현실 검증을 통해 사랑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모든 리비도를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거두는 과정이다. 최초의 애도 대상은 어머니고, 최초의 애도는 어머니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의미한다(50). 그런데 니하드는 자살을 함으로써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병리적으로 애도한다. 그는 이별한 대상을 비난하면서 “자기 파괴의 길” (프로이트 2006, 256)을 따르는 멜랑콜리에 잠겨 있다.

어머니는 니하드에게 일종의 노스텔지어(nostalgia)로 작동한다. 오디(Frawley-O’Dea)는 상실에 대한 애도가 실패하면 심리적 관계, 정치적 관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자아와 타자, 방어, 현실 검증은 그 원시적인 형성 단계로 퇴보한다고 본다. 분노, 부인, 고통이 결합된 형태인 애도는 수행하는 사람이 상실의 기억을 견딜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아에 집중하기보다 상실된 대상과 상황에 집중하면 리비도를 새로운 대상으로 옮기는 데 실패하고, 상실된 대상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가진다(594-98). 다시 말해 노스텔지어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 근거해 리비도를 옮기기보다 멜랑콜리와 마찬가지로 상실된 대상에 리비도를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머니를 신과 동일시하는 니하드는 상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실을 그리워한다.

니하드는 기독교 민병대에 붙잡혀 재교육을 받고 “아부 타렉”이란 새 이름을 부여 받는다. 아부 타렉은 저항하려고, 그리고 상황을 잊기 위해 노래를 불렀을 나왈을 강간한 후 다시 노래를 불러 보라고 비아냥거린다. 성인이 된 아이가 개종을 하고 개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짐작할 수는 없지만, 한 인간이 소년병에서 고문기술자가 되면서 받는 일련의 상처를 두 번째 트라우마로 칭할 수 있다.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무슬림 민병대에 합류한 어머니가 여전히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듯이, 니하드도 교환 가능한 대상으로 종교와 이름을 바라볼 수 있다. 이 와중에 마르완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의 순환 고리를 이으면서 오이디푸스 구조를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소년 니하드가 민병대 캠프에서 머리를 깎이는 장면과 나왈이 수용소에서 머리를 깎이는 장면은 어머니와 아들이 폭력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 작동하는 논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세월이 흐른 뒤 아부 타렉은 “니하드 하르마니”로 이름을 바꾸어 캐나다로 이주한다. 대부분의 정치범이 그렇듯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로 살던 그는 낯선 사람들, 잔느와 시몽으로부터 편지 2통을 건네받는다. 편지들은 자신을 “72번 창녀”와 “어머니”로 칭하는 한 여인의 고백을 담고 있다. “아버지에게 쓴 편지”(Lettre au père)의 화자는 자신이 “72번 죄수”임을 밝히고, “우리 자식들”이 편지를 전한다고 고백한다. 놀란 니하드는 편지를 전한 이를 뒤쫓지만, 사라진 아이들은 또 다른 상실감을 가져온다. “아들에게 쓴 편지”(Lettre au fils)는 평생 찾아다닌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전달한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태어난 아들이기에 그의 쌍둥이도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한다. 아버지의 폭력을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치환한 어머니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모두를 감싼다. 그러기에 잔느와 시몽, 니하드에게 보낸 편지에 공통적으로 “함께 있다는 건 멋진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침묵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니하드 하르마니는 세 번째 트라우마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진실은 어머니가 의도한 사랑의 말로 전달된다. 평생 서로를 찾아다닌 어머니와 아들은 폭력의 순환에서 상대를 마주한다. 그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살육의 현장에서 선택한 폭력은 자신에게 되 돌아온다. 나왈은 이 흐름을 끊으려 사랑을 선택했고, 아들의 정체를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오카스테와 달리 남겨진 아이를 심리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는 아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어머니를 잃은 상처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편지를 전한 잔느와 시몽은 어머니를 위한 비석을 세우고, 생몰년을 새긴다. 그들이 어머니가 경험한 이별과 상실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는 이별의 체의를 거친 추모의 대상이 된다. 영화의 마지막, 검은 옷을 입고 “나왈 마르완, 1949-2009”이란 문구가 새겨진 비석 앞에 선 니하드는 마침내 어머니를 만난다. 그는 벨랑콜리를 지니고 살 수 밖에 없는 인간이다. 텃줄을 끊고 생이별을 한 아기 때부터 근친을 저지른 성인이 될 때까지 니하드와 어머니의 분리가 지속된다. 사망한 어머니와의 만남은 첩첩이 쌓인 상실의 역사와 트라우마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지점이다. 아이를 찾아온 어머니는 자식을 만나지만 어머니임을 밝힐 수 없다. 그녀는 되찾은 아이가 가져온 트라우마를 아이들을 위해 진 채 죽는다.

어머니를 찾아온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만난다. 이별과 죽음으로 인해 입은 상처만큼 죄책감도 깊을 수 있다. 나왈의 묘를 바라보는 니하드는 이 지점에 서 있다.

V. 상처를 보듬는 사랑: 트라우마의 훈습

잔느와 시몽은 나왈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어머니가 겪은 다양한 형태의 이별을 접한다. 그들은 어머니의 트라우마를 듣고, 바라보고, 새기고, 전해야만 한다. 어머니가 겪은 외상의 결과물인 남매는 진실을 마주하자 경악하고 충격을 받는다. 어머니의 과거사를 복기하는 잔느와 시몽은 트라우마의 속성을 제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관객은, 나왈이 그러했듯, 되돌아오는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고, 이 기억은 상처의 시작인 니하드의 탄생을 통해 현실에서 재현된다.

사망한 아버지와 생이별한 어머니를 가진 니하드는 유아기 때부터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을 경험한다. 니하드는 상상적 아버지인 종교지도자들과 상징적 아버지인 신들을 받든 채, 이별한 어머니를 찾아다닌다. 신과 동일시한 어머니에게 스스로를 바치기 위해 자살을 꿈꾸기도 한다. 그는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사후에야 만날 뿐 아니라 어머니에게 가한, 돌이킬 수 없는 행위의 결과를 뒤늦게 인지한다. 사망한 후에야 만나는 어머니로 인해 니하드는 멜랑콜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상상의 아버지 삼세딘은 상징적 아버지를 내세워 어머니에 고착하려는, 순교를 꿈꾸는, 니하드의 시도를 금지한다. 니하드가 감옥에서 만난 어머니에게 실질적, 상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상징적 거세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한 지는 의문이다. 애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을 포기하지 않은 우울성 태도에 대한 클라인(Melanie Klein)의 진단처럼, 니하드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동시에 한 대상에 집착되고, 사랑과 공격의 대상이 같아진 상태(임진수 63)일 수 있다. 양가적 어머니를 내입하는 것은 멜랑콜리에서 대상을 내입하는 것과 비슷하고, 이를 상징하는 표현이 나왈이 니하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를 지칭한 “72번 창녀”와 “어머니”다.

트라우마의 흐름 속에서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을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을 감싼다. 잔느와 시몽의 서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왈의 상실을 역으로 재현하는 애도의 과정이다. 불 탄 버스 옆에 멍하니 앉은 나왈,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를 안고 흐느끼는 잔느와 시몽은 상실을 겪은 인간을 대변한다. 삼세딘의 회고를 통해 자살을 꿈 꾸는 니하드의 상처 역시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나왈은 자신과 가족의 상실을 애도하기 위해 니하드를 찾을 수밖에 없음을, 그가 상징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음을 인지한다. 그리고 자신이 글로 유도하고 잔느와 시몽이 수행하는 과거로의 회귀가 니하드에게도 트라우마를 가져올 것임을 안다. 그럼에도 폭력이 부른 상실의 고리를 끊기 위해,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있게 된” 인생을 마주해야 한다. 상실을 애도하는 감독의 서사가, 그리고 그 서사를 재구성한 본 연구의 시선이 편지를 전하며 니하드를 쳐다보는 잔느와 시몽, 그들이 세운 묘비 앞에 말없이 서 있는 니하드에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왈을 위한 애도가 상처의 기억을 안고 살아갈 이들에 의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자식의 이름을 짓지 못한 어머니는 상처의 흔적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뒤에 남긴다. “72번 죄수,” “창녀,” “노래하는 여인”으로 불리며 외상의 기억을 안고 간 어머니는 과거를 돌아보는, 즉 상실을 되새기는, 여정을 거친 후에야 수의를 입고, 묘비를 세우고, 이름을 적는 애도의 절차를 밟는다. 어머니는 말하기 벅찬 과거의 기억을 꺼내 진실을 드러내는 여정을 이끌고, 길을 떠난 아이들은 오염하고, 껴안고, 침묵한다. 그리고 상처를 되짚고 보듬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한다.

Works Cited

- Ahn, Young-soon. “Aristotelian Storytelling in Denis Villeneuve’s <Incendies>.” *Global Cultural Contents* 24 (2016): 221-40. Print.
 [안영순. 『드니 빌뇌브의 <그을린 사랑>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식 스토리텔링』, 『글로벌문화콘텐츠』 24 (2016): 221-40.]
- Caplan, Gerald. “Mastery of Stress: Psychological Aspect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8.4 (1981): 413-20. Print.

- Frawley-O'Dea, Mary G. "When Mourning Never Comes: What Happens When Individuals, Institutions, or Nations Fail to Mourn After Trauma." *Contemporary Psychoanalysis* 54.4 (2014): 593-608. Print.
- Freud, Sigmund.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Through." *Further Recommendations on the Techniques of Psycho-Analysis*. Trans. Deokha Lee. Seoul: bbooks, 2004. 103-21.
 [프로이트. 「기억하기, 되풀이하기, 그리고 혼습하기」. 『끝낼 수 있는 분석과 끝낼 수 없는 분석』. 이덕하 옮김. 서울: 도서출판b, 2004. 103-21.]
- _____. "Mourning and Melancholia." *On Psycho-Analysis*. Trans. Huiji Yoon & Chanbu Park. Seoul: Openbooks, 2006. 239-65.
 [프로이트.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6. 239-65.]
- Incendies*. Dir. Denis Villeneuve. DVD. Sony Pictures, 2010.
- Kim, Suk-hyun. "A Study on Wajdi Mouawad's 'Incendies' based on Lacanian Thoughts of the Woman." *Journal of Korean Theatre Studies Association* 53 (2014): 57-87. Print.
 [김숙현. 「여자의 사랑, 행위 그리고 정치-와즈디 무아와드의 <그을린 사랑>」. 『한국연극학』 53 (2014): 57-87.]
- Lacan, Jacques. *The Object Relatio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V*.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A. R. Price. Medford: Polity P, 2020. Print.
- Lee, Myung-ho. "The Will of Iocaste—The Demand of Justice and the Order of Love."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35 (2015): 7-39. Print.
 [이명호. 「이오카스테의 유연: 정의의 요청과 사랑의 질서」. 『여성문학연구』 35 (2015): 7-39.]
- Lim, Jae-il. "Leaping over the Ancient Mythology Shown in a Film Incendies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Incendies-." *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18 (2019): 57-79. Print.
 [임재일. 「영화 <그을린 사랑>에서 나타난 고대 신화 뛰어넘기-원작 <화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18 (2019): 57-79.]
- Lim, Jin-soo. *Mourning and Melancholy*. Seoul: Powerbook, 2013.
 [임진수. 『애도와 멜랑콜리』. 서울: 파워북, 2013.]
- Sollars, Franklin R. "Mourning, Trauma, and Working Through." *Psychoanalytic Review* 91.2 (2004): 201-19. Print.
- Wald, Jaye, Steven Taylor, and Ingrid C. Fedoroff. "The Challenge of Treating PTSD in the Context of Chronic Pain." *Advances in the Treatment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d. Steven Taylor. New York: Springer, 2004. Print.

이일수 (군산대학교 / 교수)

주소: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인문대학 1325호

이메일: suel@kunsan.ac.kr

김태형 (군산대학교 / 부교수)

주소: (54150)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인문대학 1325호

이메일: thkim11@kunsan.ac.kr

논문접수일: 2023. 09. 16. / 심사완료일: 2023. 11. 05. / 게재확정일: 2023. 11. 17.